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2월 6일 (제1074 호)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싫어서다!

유독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집이 싫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이 싫은 게 아니라 부모가 싫고 가족이 싫은 거다. 명절 때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안 가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 가는 게 귀찮아서라기보다 부모님하고 마주하는 게 싫어서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가능한 최대한 늦게 갔다가 최대한 일찍 나오려고 한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죽어도 처가에 안 가려는 남자들이 있다. 그들 이유를 들어보면 불편해서라는데, 사실은 장인 장모와 정이 없어서다.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바빠서'라고 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싫어서다. 하나님과 정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서다. 그래서 어쩌다 교회 끌려가면 제일 늦게 가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 전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다. 내가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하는가? No!

그런 마음을 부모님이 모를까? 장인 장모는 정말 사위가 바빠서 못 온다고 생각할까? 하나님도 정말 일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생각하실까? 그분은 우리 속까지 읽으시는 분인데?

그런 일이 자주, 오래 일어나면 부모도, 장모도 섭섭해 한다. 그리고 '그래, 오지 말라고 해라. 나도 안 볼란다.' 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고 말씀하시고, 역지로 교회 뜰만 밝는 자, 역지로 끌려 예배 시작한 후에 들어오는 자,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 1:10). 직역하면 "내가 싫다고? 그럼 나도 너 싫다." 이런 말이다.

부모가 외면하기 전에, 장인 장모가 섭섭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싫다 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고 자주 찾아뵙고, 공예배에 꼭 참석하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고의적인 것과 실수는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다. 그러나 설령 의도적이었다 해도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경우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성경에서 실수했던 자들과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여주셨다.

"야나니아, 삽비라는 고의적으로 베드로를 속여서 저주 받은 대표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네 아

인한 과실치사인 경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며 개전의 정을 보일 때는 정상 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나의 죄는 남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살인한 다윗이 있었죠. 다윗 자신은 완전 범죄로 다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하나밖에 없

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이 땅에서도 잘 될 수가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절대 잘 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판지 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조차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기 눈



성령의 역사를 휘방하는 자들은 금세와 내세에 용서가 없다(베네수엘라 바르가스 집회 광경)

내와 더불어 속이느냐?' 베드로의 말은 들은 야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고의적으로 판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실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검찰, 경찰, 감옥이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천군과 천사, 지옥을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는 재판정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때립니다. 그러나 실수로

는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데리고 살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펄펄 뿔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직언했을 때, 다윗은 즉시로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성대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비록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어 그의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는 저주를 받았습니

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을 나라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나치의 600만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저주를 당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학살을 명령하고 부역했던 나치 전범들은 지금까지도 단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역사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을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히9:27).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박수를 보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1~3)

믿음은 꿈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6:3).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믿음도 전염되고 부정도 전염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사람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창1:27).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7).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11:33~36)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139:7~8). 또 그분은 우리의 속내까지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시139:1~3).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32,500가지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23:19).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히6:18). 더욱이 그

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며 (마

7:11),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롬8:28).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잘 되기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꿈같은 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소경 바디매오가 눈을 뜬 일(막10),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나음을 받은 일(막5),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요5).... 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大事)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시대 그 역사의 일이라며 무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빛만 남기고요. 어느 날 채주가 와서 빛 대신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화급히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자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고 말합니다. 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고, 아들과 방에 들어가

문을 건 채 기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와 아들은 엘리사

가

지 한 대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을 따르고 따

라도 줄지 않았습니 다.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을 때야 기름이 그쳤습니 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에게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자(母子)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이들이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혹은 선지자의 말을 반신반의했더라면 이런 꿈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No.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귀에 들리고, 주의 종의 말에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부정적인 말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작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선처를 입어 이스라엘 땅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러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맞이하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만 합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대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를 수행한 종들이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습니까?”(왕하5:13)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속히 달려오려면 긍정적인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은 부정적인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꿈같은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마귀도 일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걸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시며 부정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며(막10:25),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마17:20).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당신 삶에 꿈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위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까무러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 구하세요.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곧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다시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태를 담은 분도,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삶 속에 꿈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요? 선한 삶의 본보기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 과 레위인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선한 복음은 선한 행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선두 그룹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은밀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제자들과 예수님의 브리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상과 혼합된 신앙에서 전심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며, 예수님을 손님처럼 밖에 세워두는 삶에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복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석상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둑은 아무런 보석도 가지고 가지 않고

보석 아래 적어 놓은 가격표를 바꾸어 놓기만 하고 갔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험값의 가격표를,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귀한 보석을 모두 험값에 팔아 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 삶에 들어와 삶의 가치를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보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우상으로 바꾸어버리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적 선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개개인의 모든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각자의 핵심역량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Dr.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 세상을 보는 창 ::

상처

오래전 양배추를 다듬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한참 지압을 한 후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하지만 밴 자리에 물이 들어가자 다시 틈이 벌어지고 하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상처가 덧났다. 한 이틀 짝 달라붙는 밴드를 계속 붙인 후에야 벌어진 상처가 메워지고 붓기가 가라앉았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상처의 깊이는 마음이 언짢은 정도부터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까지 다양하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중에는 아마도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깊을 것 같다. 가족은 가장 사랑하고 믿는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믿었던 친구나 주변의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마음에 오래 가는 흉터를 남긴다.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남기는 정신적, 영적 흉터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마음속 깊이까지 찢린 상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 아물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다. 찢린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덧나고 부었

는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모든 생명체에는 자연적인 치유의 힘이 있다. 그러나 상처를 인식하지 않은 채 덮어놓으면 치유될 수 없다. 때론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만 본인은 그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받은 상처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하고,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어렵고, 심지어는 고슴도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찌르면서 살기도 한다. 두 번째는 상처를 직시하고 알맞은 조치로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한다. 회복의 길을 가려면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서는 쉽지 않아서 한 번씩 우리의 기억 속에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평생 흉터를 안고 살지 않으려면 밴 손가락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듯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싸매심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눈물에 젖어있는 그의 자녀들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때문에와 덕분에

코로나 초기, 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며, 어떠한 영향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잡혀있던 행사나 모임들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면서 행사관련 촬영이나 편집 일을 하던 나에게도 타격이 왔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찌할 줄 몰랐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럴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때문에 신앙’과 ‘덕분에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방송에 대한 흐름과 모든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장비와 기술들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외부 비대면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그램 및 장비들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중고등부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스트리밍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정보들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새벽기도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 또한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번 코로나 기간이 나의 영·혼·육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때문에’라는 불평에서 ‘덕분에’라는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상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늘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은성
es2563@naver.com



:: 오늘의 메시지 ::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삶, 활력이 넘치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가 그런 시기이다. 그러나 나이 들면 모든 변화가 극도로 적어지며 활력을 잃게 된다. 그게 늙는 것이다. 나는 62세에 늦깎이 목사가 되었다. 익숙했던 환경이 다 사라지고 새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으로 발령을 받아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변화에는 항상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지만, 이젠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매일 저녁 기도가 끝나면 텅 빈 교회에 홀로 남으니 적적하다. 눈을 돌리니 내게 삼천 평 정원과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생겼다. 인근 지바 신사에 가면 정원이 참 잘 꾸며져 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가면 혼자 그 정원을 누릴 수 있다. 외로운 것만 제외하면 참 고즈넉한 삶이다. 어느 날 매력적인 고양이가 내 곁에 왔다. 한국에서는 영물이라는 생각에 가까이 안 했는데 웬지 반갑다. 고양이가 좋아할 간식을 이것저것 주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진다. 입맛이 맞으면 좀 떨어진 곳에 서 털 손질을 하며 잠깐 같이 있다가 땡하니 사라진다. 건드려 볼 수 있는 것을

안 준다. 요새 주는 간식에 반응이 시큰둥하다.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참 도도하다. 밀당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다. 고기구이를 줘보니 환장을 하고 반색한다. 내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딸들을 이리 길렀다면 아빠를 더 사랑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다. 사업한다는 핑계로 자주 사랑을 주지 못했다. 아쉬움이 많은 내 생을 이제에 잊으려 한다. 이제 주어진 새로운 삶에 후회가 없도록 내 힘을 쏟으려 한다.

내가 고양이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랴. 고난 오면 불평하고 뿔뿔히 버리고, 배고프면 사랑 없이 돌아와 서성이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았다.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심정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같다. 내 모든 삶이 훈련이고 감사이다. 삼천 평 정원을 곁에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이광주 목사
leekjlkj@naver.com

보이지 않아도

아기는 9개월이 되면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 영속성은 눈앞에 있던 사물이 없어져 보이지 않더라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기 앞에 있다가 어떤 사물 뒤에 숨더라도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시나? 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까?’ 투정을 부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매번 의심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한지라 긴 연단의 시간을 건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집안의 큰 사업을 두고 작년부터 합심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네 번, 어머니는 하루에 세 번, 우리 형제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고, 회사 업무가 조금 일찍 끝나 시간이 허락되면 저녁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한 것은 처음인데 사업은 점점 미국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모든 생활을 기도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임

신 초기였는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어도 기도의 불은 더 타올랐습니다.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는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하자 한 꿈을 꾸었는데, 저와 첫째 동생이 만삭이 되어 한날한시에 아기를 낳으러 가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꿈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이것은 필시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며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출산을 하고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출산한지 한 달도 채 안되어,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매일 아침, 저녁, 부모님 사무실로 기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금식까지 두어 차례 하시면서 애통하며 애꿎는 기도를 하셨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업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산후조리를 충분히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러 갔고, 이 코로나 시국에 연약한 신생아까지 동원했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걸까?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걸까?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여섯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엔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부모님 댁에 거실이며, 주방이며, 방방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 그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도의 독을 채우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마가복음 11:24).

우리 가족의 기도는 역전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금 더디다고, 응답의 말씀이 없다고, 너무 조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1,6).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소원과 소망 & 욕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며 살아간다. 그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 점차 성장해나간다. 그러나 때론 과한 욕심이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2:13).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소망,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소원이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어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또 상황들을 인도해주신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결국엔 보게 하시고, 가계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한편,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생겨나는 소망들이 있다. 보통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을 소망하고, 육체의 건강과 더 나은 사회적 위치나 직업, 마음의 행복을 소망한다. 이러한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달리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보려 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가려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이루려 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놓으신 세상의 법칙을 깨지 않으신다. 바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법칙이다. 합격을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고,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선 저축과 재테크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의 기적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나의 개인적인 소망, 그리고 조심스러운 욕심 사이 현재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폐경기 호르몬 치료와 심혈관질환

폐경은 여성의 월경이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여성임을 의미하는 난소의 기능이 다 끝나버렸다는 중대 사안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812년 처음으로 프랑스 의사가 폐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100년이 더 지난 1920년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구조를 알아냈고, 1942년에 드디어 미국 식약청에서는 프레마린이라는 에스트로겐 복합제를 폐경 증상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폐경이 된 여성이 여성호르몬을 복용하여 폐경으로 인한 증상을 해결하면서 프레마린은 모두가 인정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급성장하던 호르몬 치료약계 회사는 호르몬 치료를 심장질환의 예방약으로 미국 식약청에 허가 신

청을 할 정도였으며 호르몬 치료효과에 입증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1991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관리 하에 계획하여 4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1993~1998년에 걸쳐 모집된 50~79세 사이의 폐경 여성 161,809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연구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병합요법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인 2002년에 기대와 달리 심장질환, 유방암, 뇌졸중, 정맥혈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골절 감소와 대장암 위험 감소의 이점보다 상회하였으므로 연구가 중단되었고,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 폐경 호르몬 치료는 혼란에 빠져버렸으며 처방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과연 폐경 여성에게 호르몬 치료는 좋을까? 나을까?

폐경은 안면홍조, 발한, 불면증, 전신통,

불안감, 우울, 기억력 감퇴, 비뇨생식기 위축, 성교통, 피부 변화가 전형적인 증상이다. 폐경이 된 여성의 15~25%는 그 증상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이들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며 적절한 검사를 통해 호르몬 치료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안전한 호르몬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여성건강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병합 투여한 첫 1~2년에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나이가 많고 폐경이 된 지 오래된 여성, 특히 심장질환을 앓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